

종로학원 선배의 재수 성공 가이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계열 김동휘



생활 태도

올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10시에 귀가한 후 11시에 바로 잠자리에 들고 5시 30분~6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모범을 보이기 위해 7~8월까지 7시 전에 학원에 도착해서 먼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다수 재수생들이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을 얘기했을 때 의아해합니다. 몸소 겪어보기 전까지는 저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나서 다음 날 수업시간 집중을 위한 최상의 컨디션이 유지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세면, 배변했는지 여부, 옷차림 등과 같은 사소한 요인도 하루 집중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저는 청바지를 입고 학원에 오면 불편해서 공부에 안됐기 때문에 거의 항상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학원은 멋 부리고 이성 친구 사귀러 오는 곳이 아니기에 옷차림 하나하나도 공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생활하세요. 집중에 방해되는 것들을 차단하세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공부를 못한다면 인간관계를 잠시 단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 끝나면 생각보다 반 친구들을 많이 안 봅니다. 재수생활에선 비록 왕따가 되더라도 대학 잘 가면 승리가 됩니다. 저는 밥도 거의 항상 혼자 먹으면서 배운 내용을 되새김하거나 자습시간에 무엇을 공부할지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의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재수 때 즐겨 먹던 야식도 다음 날 공부에 방해될 것 같아 먹지 않았습니다.

학습 태도

선생님은 가리지 말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선생님이 자기와 안 맞다고 배척하거나 거만하게 굴면 자기 손해입니다. 어떤 선생님이든지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게 수능 날 좋은 점수를 받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국어 과목을 예로 들겠습니다.

1. 실력을 키우는 공부

실력을 키우는 공부에는 독해력을 키우는 공부가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인물의 심정이 어떨까?” “이 부분에서 이리이러하므로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 문장을 쓴 글쓴이의 의도가 뭘까?” 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됐습니다. 문제 풀 때 자신의 사고 과정을 글로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적어 놓고 나면 어디서 사고가 잘못 됐는지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이 글의 어떤 부분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참고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2. 시험 상황에 강해지는 공부

시험 상황에 강해지는 데에는 모의고사 후 시험지를 다시 보며 내가 정신적으로 흔들린 부분과 이유를 찾는 공부가 도움됐습니다. 틀린 문제를 보고 “아, 내가 어려워하는 과학 지문에 멘탈이 흔들려서 다음 지문에 있는 이 문제를 틀렸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학생은 다음 시험부터 과학지문 풀이 이후 정신을 바로 잡게 됩니다.

3. 실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을 준비하는 공부

저는 국어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EBS에 실린 문학 작품 대부분을 원작을 찾아 읽었습니다. 덕분에 수능 날 현대소설 부분에서 통째로 읽었던 작품이 나왔습니다. 고전문학 부문도 14종 문학 자습서 모음집을 여러 번 읽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전 시가를 보는 눈도 생긴 것 같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내가 절대적인 실력을 키워서 어떤 난이도의 문제든 다 맞을 거야”와 같은 객기를 부립니다. 그러다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실력 발휘도 못 해보고 +1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험상황에 대처하는 연습과 실력을 넘어선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